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글을 읽을 때 의미를 구성하는 독해가 가능하려면 우선 문자를 해독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자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음운 인식, 단어 재인, 읽기 유창성 등의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 중에서 읽기 유창성은 음운 인식과 단어 재인을 바탕으로 발달된다.

㉠ 음운 인식은 하나의 음절이 음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절이 음운에 따라 달리 발음될 수 있음을 아는 능력이다. 예를 들어 음운을 인식할 수 있는 독자는 ‘곰’, ‘공’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 하나의 음운이 달라서 이들의 발음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안다. ㉡ 단어 재인은 시각적으로 제시된 부호를 독자 자신이 알고 있는 어휘 중 특정 단어의 의미, 발음과 같은 정보들과 연결하는 능력이다. 예를 들어 ‘꽃사과’라는 시각적 부호가 제시되었을 때, 이것의 발음을 알고 이것이 ‘아직 덜 익은 사과’를 의미하는 단어임을 아는 것이다.

읽기 유창성은 큰 노력 없이 단어의 발음과 의미를 확인하며, 글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이다. 읽기 유창성은 주로 낭독의 정확성과 속도로 확인하는데, 정확성은 제시된 글에서 정확하게 읽은 단어의 비율로, 속도는 제한된 시간 내에 정확하게 읽은 단어의 수로 나타낸다. 글을 유창하게 읽을 수 있으면 독자는 글의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 주의를 더 기울일 수 있다.

[A] 독자가 글을 낭독할 때 드러나는 오류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첨가’는 제시된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음절을 추가하여 낭독하는 경우이고, ‘생략’은 제시된 음절을 빠뜨리고 낭독하는 경우이다. ‘반복’은 음절을 반복하여 낭독하는 경우이고, ‘대치’는 음절을 다른 음절로 바꾸어 낭독하는 경우인데, 대치하여 낭독한 단어가 어휘적 의미를 가지면 ‘의미 대치’, 의미가 없으면 ‘무의미 대치’로 다시 나누기도 한다.

문자 해독이 능숙하지 않으면 의미를 구성하는 독해를 경험하기 어렵기 때문에 독자는 글을 낭독하면서 이러한 오류를 파악하고 고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읽기 유창성의 속도는 제시된 글에서 정확하게 읽은 문장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
- ② 읽기 유창성을 갖춘 독자는 그렇지 않은 독자보다 글의 의미 구성에 집중할 수 있다.
- ③ 독해가 가능하려면 시각적으로 제시된 부호를 단어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읽기 유창성을 갖춘 독자는 단어를 발음할 때 음운을 인식할 수 있다.
- ⑤ 문자 해독이 능숙한 독자는 낭독의 정확성이 높을 수 있다.

2.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음운을 음절에 따라 달리 발음할 수 있는 능력이다.
- ② ㉠을 갖춘 독자는 어휘의 의미 정보를 활용해 글을 유창하게 읽는다.
- ③ ㉠을 갖춘 독자는 음절들을 정확히 발음하며 음절 간의 의미 차이를 안다.
- ④ ㉡은 문장에서 시각적 부호의 개수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능력이다.
- ⑤ ㉡을 갖춘 독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단어들이 시각적으로 제시되었을 때 각각의 의미를 구별한다.

3. <보기>는 읽기 유창성 확인을 위해 낭독할 자료이다. [A]를 바탕으로 그 낭독 결과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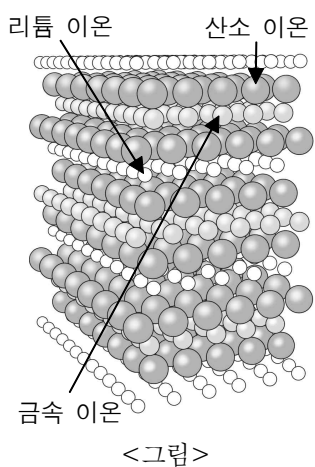
< 보 기 >

㉠ 옛날에 포졸로 위장한 암행어사가 있었는데 ㉡ 하루는 원님이 씨가 없으면서 ㉢ 굶이 많은 수박을 구해 오라고 시켰다. 암행어사는 수박들 ㉣ 가운데서 잘 익은 수박만을 골라 쪼개어 보고 씨가 있으면 마을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다. ㉤ 그렇게 하자 원님은 씨가 없는 수박 찾기를 멈추었다.

- ① ㉠을 정확한 발음인 [엔:나레]로 낭독하지 않고 [엔:날]로 낭독했다면, 생략 오류가 드러나는 것이겠군.
- ② ㉡을 정확한 발음인 [하루는]으로 낭독하지 않고 [하하루는]으로 낭독했다면, 반복 오류가 드러나는 것이겠군.
- ③ ㉢을 정확한 발음인 [즈비]로 낭독하지 않고 [과:즈비]로 낭독했다면, 무의미 대치 오류가 드러나는 것이겠군.
- ④ ㉣을 정확한 발음인 [가운데서]로 낭독하지 않고 [가운데에서]로 낭독했다면, 첨가 오류가 드러나는 것이겠군.
- ⑤ ㉤을 정확한 발음인 [그러케]로 낭독하지 않고 [이러케]로 낭독했다면, 의미 대치 오류가 드러나는 것이겠군.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리튬 이온 이차 전지’는 리튬 이온을 저장할 수 있는 물질을 양(+)극과 음(-)극의 재료로 하여 충·방전의 반복을 가능하게 한 전지이다. 이 전지가 충전될 때 양(+)극의 활물질에 저장된 리튬 이온이 음(-)극으로 이동하고, 방전될 때는 음(-)극의 활물질에 저장된 리튬 이온이 양(+)극으로 이동한다. 활물질이란 충·방전 시 양(+)극과 음(-)극에서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전기 에너지 저장과 방출에 관여하는 물질이다.



① 층상 구조의 리튬 금속 산화물을 많이 사용한다. 이 산화물은 금속 이온과 산소 이온이 결합한 구조물에 리튬 이온이 삽입되어 있는 고체 화합물로, <그림>과 같이 산소 이온들이 배열되어 층을 이루고 산소 이온들의 층과 층 사이에 금속 이온 층과 리튬 이온 층이 교대로 있는 구조이다. 전지를 충전할 때 층상 구조의 리튬 금속 산화물에서 리튬 이온이 층 속에서 벗어나 따로 떨어지게 되는 탈리가 일어나고, 방전될 때는 리튬 이온이 층 속에 삽입된다. 전지의 양(+)극에 있는 활물질을 양극 활물질이라 하는데, 이 물질에 있는 리튬 이온이 모두 탈리될 때 단위 무게당 이동하는 전하량*을 이론적으로 계산한 값이 양극 활물질의 이론 용량이다.

양극 활물질로 사용되는 리튬 금속 산화물을 만들 때는 코발트, 니켈, 망가니즈 등의 금속이 활용된다. 고가인 코발트를 사용한 리튬 코발트 산화물이 양극 활물질로 가장 먼저 상용화되었다. 이 산화물은 전지가 충전될 때 본래 가지고 있던 리튬 이온의 양에서 절반 이상의 리튬 이온이 빠져나가면, 층을 이루고 있던 산소 이온이 기체로 배출되어 구조가 붕괴되기 때문에 리튬 이온의 삽입과 탈리가 반복되기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양극 활물질의 용량은 이론 용량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론 용량의 절반 이하를 사용하는 조건에서는 이 활물질을 사용한 전지의 수명이 긴 편이다.

리튬 코발트 산화물이 고가이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적은 문제가 있어 코발트 함량비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저가인 니켈과 망가니즈를 섞어서 만든 NCM계 리튬 금속 산화물이 제안되었다. NCM계 리튬 금속 산화물은 니켈, 코발트, 망가니즈의 함량비로 구분된다. 가령 NCM523은 니켈, 코발트, 망가니즈의 함량비가 각각 50%, 20%, 30%인 리튬 금속 산화물이다. 니켈 함량비가 높을수록 활물질의 실제 사용 가능 용량이 늘어나고, 이 용량이 커지면 전지의 사용 조건이 같을 때 한 번 충전 시 전지의 사용 시간이 길어진다. 하지만 니켈의 높은 반응성 때문에 충·방전 중 산소를 비롯한 기체가 발생하고 구조가 무너져 전지의 수명이 저하되기 쉽다. 한편, 구조의 변형을 억제하는 망가니즈의 함량비를 늘리면 전지의 안정성은 높아지지만 활물질의 실제 사용 가능한 용량은 줄어든다.

최근에는 NCM계 리튬 금속 산화물의 단점을 보완한 활물질들이 ㉠ 나옴 있다. 예를 들어 니켈, 코발트, 망가니즈에 다른 금속인 알루미늄을 조합하여 큰 용량과 안정성을 갖춘 NCMA가 이차 전지에 활용되기 시작했다.

* 전하량: 어떤 물체 또는 입자가 띠고 있는 전기의 양.

4.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니켈, 코발트, 망가니즈에 다른 금속을 조합하여 NCM계 리튬 금속 산화물의 단점을 보완한 양극 활물질이 등장하였다.
- ② 리튬 코발트 산화물의 리튬 이온 양이 본래의 절반 넘게 유지되면 구조가 붕괴된다.
- ③ 활물질은 전지의 충·방전 시 양(+)극과 음(-)극에서 화학 반응을 한다.
- ④ 리튬 코발트 산화물은 이론 용량보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적다.
- ⑤ 리튬 코발트 산화물은 양극 활물질로 가장 먼저 상용화되었다.

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온들의 배열이 층을 이루어 쌓여 있는 구조이다.
- ② 고체로 된 화합물로 전지의 양(+)극에서 사용된다.
- ③ 리튬 이온이 완전히 탈리되었을 때를 전제하여 이론 용량이 계산된다.
- ④ 층상 구조가 붕괴되면 리튬 이온의 삽입과 탈리의 반복이 어려워진다.
- ⑤ 방전 시 리튬 이온이 따로 떨어지게 되고, 충전 시 리튬 이온이 삽입된다.

6.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A사는 리튬 이온 이차 전지를 생산하기 위해 양극 활물질로 리튬 코발트 산화물, NCM433, NCM622, NCM811 중 하나를 선정하여 양극 활물질을 생산하는 업체와 구매 계약을 맺으려고 한다. (단, 니켈, 코발트, 망가니즈의 함량비 외 다른 변수는 없다고 가정한다.)

- ① A사가 전지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NCM433과 NCM622 중 NCM622는 선정되지 않겠군.
- ② A사가 구매 비용보다 전지의 수명을 더 중요시한다면, NCM433과 NCM811 중 NCM811이 선정되겠군.
- ③ A사가 구매 비용이 낮고 실제 사용 가능 용량이 큰 양극 활물질이 필요하다면, 리튬 코발트 산화물은 선정되지 않겠군.
- ④ A사가 전지의 안정성보다 양극 활물질의 실제 사용 용량을 더 중요시한다면, NCM433과 NCM622 중 NCM622가 선정되겠군.
- ⑤ A사가 한 번 충전 시 전지의 사용 시간이 가장 긴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NCM622와 NCM811 중 NCM622는 선정되지 않겠군.

7. ㉠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오랜만에 좋은 제품이 나왔다.
- ② 오늘 신문에 그 기사가 나왔다.
- ③ 낯은 수도권에서 녹물이 나왔다.
- ④ 그가 주연으로 연극 무대에 나왔다.
- ⑤ 고속 도로의 끝에서 드디어 휴게소가 나왔다.

[8~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하려는 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만으로 그 채무들을 대등액에서 소멸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A는 B에 대하여 200만 원의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고 B는 A에 대하여 100만 원의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A 또는 B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100만 원에 관해서 그들의 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데, 그것이 곧 상계이다. 채무들을 대등액에서 소멸하게 하는 상계의 목적은 상계가 아닌 계약으로도 달성할 수 있다. 상계는 채무 결제를 간단하고 쉽게 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파산하더라도 상계의 권리를 행사하면 자신의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상대방의 채권이 상계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

상계가 법적인 효과가 있으려면 당사자 쌍방이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보통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 채권이 상계에 이용된다. 이때 상계하려는 자의 채권을 자동 채권이라고 하고, 상대방의 채권을 수동 채권이라고 한다. 상계의 대상이 되는 이러한 채권은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직접 발생한 채권에 한정되지 않으며, 제삼자로부터 취득한 채권도 포함한다. 자동 채권은 상계자 자신이 피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지만 연대 채무에서와 같은 예외도 있다. 연대 채무는 여러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한 명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채무를 면하게 되는 채무이다. 연대 채무 관계 내에서는 상계자 자신의 채권이 아닌 다른 연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수동 채권은 피상계자가 상계자에게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며, 피상계자가 제삼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상계되지 못한다.

쌍방의 채권이 같은 종류라도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 즉 변제기가 도래해야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자동 채권과 수동 채권에서 다소 다르다. 자동 채권의 경우에는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은 채무 변제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부당하게 잃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동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상계자가 변제기를 통해 얻는 이익을 포기하면서 상계할 수 있다. 또한 채권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같은 종류의 노동을 채무자가 제공하기로 한 경우와 같이 쌍방의 채권이 채무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상계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도 상계할 수 없다. 고의로 손해를 끼친 자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 채무처럼 수동 채권에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 상계가 금지되며, 당사자 간의 특별한 합의인 특약을 통해 상계를 금지할 수도 있다.

상계의 방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로 한다. 이러한 의사 표시가 없으면 상계는 일어나지 않는다. 상계하면 두 채권이 상계의 요건을 갖춘 때부터의 대등액에 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계의 의사 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상계의 의사 표시를 할 때 상계할 수 있는 두 채권이 원칙적으로 현존해야 하며, 상계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한 때에는 상계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그 권리가 소멸한 경우, 즉 소멸 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8.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상계의 의사 표시를 할 때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 ② 채권을 가진 당사자는 상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할 수 없다.
- ③ 상계를 통해 채무 결제를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다.
- ④ 상계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법적 효과가 있다.
- ⑤ 금전 채권이 아닌 채권으로도 상계할 수 있다.

9.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동 채권이 자동 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이겠군.
- ② 채무들을 대등액에서 소멸하게 하는 것은 계약을 통해서 할 수 없겠군.
- ③ 상계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채무들이 즉시 대등액에서 소멸하겠군.
- ④ 상계자는 제삼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피상계자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겠군.
- ⑤ 상계할 수 있었다더라도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그 권리가 소멸한 채권은 자동 채권이 될 수 없겠군.

10. 윗글을 참고할 때 상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상계의 의사 표시를 하기 전에 상대방이 이미 채무를 변제한 경우
- ② 옷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금전 채권과 상계하려는 경우
- ③ 변제기에 있지 않은 채권의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자신의 자동 채권으로 상계하려는 경우
- ④ 채무자가 제공하기로 한 노동과 같은 종류의 노동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경우
- ⑤ 고의로 손해를 끼친 자가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금전 채무를 수동 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려는 경우

1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을, 병은 갑에 대하여 120만 원의 연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을은 갑에 대하여 12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갑의 채권의 변제기는 2023년 5월 1일이고 을의 채권의 변제기는 2023년 9월 1일이며, 위 변제기는 모두 지났다. 갑과 을의 채권에 관해서는 상계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이 없으며, 상계를 금지하는 특약도 하지 않았다.

- ① 갑이 파산한 경우에도 을은 상계를 통해 자신의 채무를 면할 수 있다.
- ② 병이 갑에 대한 채무 전부를 이행하면 을도 갑에 대한 채무를 면한다.
- ③ 병이 을의 갑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기 위해서는 을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④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이 제삼자로부터 취득한 것인 경우에도 을은 이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 ⑤ 을이 2024년 10월 1일에 갑에게 상계의 의사 표시를 하면 2023년 9월 1일부터 대등액에 관해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12 ~ 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프랑스의 계몽주의자들은 신화적 관점이나 중세 시대의 종교적 관점으로 역사를 파악하고 서술하는 것을 배격했다. 이들은 이성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았고, 이러한 입장은 계몽주의자인 볼테르에 의해 ㉠ 확립되었다.

볼테르는 역사의 동인을 신으로 보았던 중세 시대의 관점을 비판하고, 이성에 의해 역사가 변화된다고 보았다. 그는 이성과 자연, 이성과 종교·정치·사회 등의 제도가 상호 작용하면서 역사가 끊임없이 발전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역사의 발전은 이성 그 자체가 발전하면서 문화를 발전시키는 이성의 발전사인 것이었다. 그에게 있어 문화는 예술, 법, 정치, 지식, 과학, 풍속, 습관, 음식, 기술, 오락 등 인간 생활과 관련된 것들로 이성의 활동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는 문화에 대한 이러한 입장에서 문화를 역사 서술의 대상으로 삼아 역사를 서술함으로써 이성의 발전을 드러내려고 했다.

볼테르는 모든 시대와 민족을 ㉡ 포괄하는 방대한 문화사를 서술했다. 이를 통해 이성이 모든 시대의 역사나 모든 민족의 역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발전 요소이며, 역사는 이성의 발전 과정임을 드러내려 한 것이었다. 그는 이러한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사료를 선택할 때는 이성의 업적을 보여 줄 수 있으면서 가장 확실한 기록에 기초를 둔 역사적 사실들을 선택했다. 그리고 역사를 서술할 때는 정치를 역사의 중심에 놓고 연대기적으로 서술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 탈피하여, 예술이나 법과 같은 문화를 구성하는 것들을 화제로 삼아 기술하는 화제 중심 체제의 방식을 사용했다.

역사가 이성의 발전 과정임을 드러내려는 볼테르의 의도는 이성의 발달에 따라 역사의 시대를 헬레니즘 문명의 알렉산드로스 시대,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시대, 르네상스의 메디치가 시대, 프랑스의 루이 14세 시대로 구분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그에 따르면 각 시대는 이성의 성숙과 완성 정도가 달랐다. 한 시대에 이룩된 문화의 성숙은 전승, 누적, 융합되어서 더 발전되고 성숙된 문화를 만들어 가며, 이는 다시 다음 시대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루이 14세 시대는 메디치가 시대의 문화가 프랑스에 전승, 누적, 융합되어 성숙 및 발전을 이룬 것이었다. 그에게 루이 14세 시대는 이성의 완성에 가장 가까운 시대였다.

역사와 역사 서술에 대한 볼테르의 입장은 역사는 퇴보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해 나간다는 직선적 역사 발전관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가 이성을 역사의 동인으로 보고 이성을 척도로 사료를 선택하고 문화사를 서술한 것에서, 세계 전체의 역사가 진전되어 가는 원리를 바탕으로 모든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척도에 따라 각 시대를 평가하는 보편주의적 관점을 취했음을 알 수 있다.

(나)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이자 역사학자인 헤르더는 계몽사상의 시기를 거치면서, 역사에 대한 볼테르의 입장에서 나타나는 한계점을 인식했다. 그는 개체성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역사의 나선형적 발전을 주장하면서 볼테르의 입장과 주장을 비판했다. 그는 이를 통해서 자신만의 역사 철학을 전개해 나갔다.

헤르더가 주장한 개체성은 역사에 대한 볼테르의 보편주의적 관점과 대비되는 것으로, 그에게 개체성은 민족의 개체성을 의미했다. 개체성은 기후와 풍토 및 관습 등에 근거해서 여러

지역의 인간 공동체, 다시 말하면 각 민족에게서 다양하게 형성된 것이며 각 민족의 문화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각 민족이 추구하는 목표, 생활하는 방식, 삶을 바라보는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개체성의 입장에서 그는 각 민족이 나름의 독특한 민족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여러 민족들 각각의 역사적 시대는 모든 민족의 역사 속 하나의 개체로서 중요한 가치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각 민족의 역사적 시대는 고유한 위상에서 연구되어야 하고 그 시대는 존중받아야 했다.

헤르더는 민족의 개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족에 대한 선입관을 버리고 민족의 시대와 역사, 민족이 처한 환경적 조건 속으로 ㉣ 침투해서 이것에 동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개체성에 대한 그의 관점과 이를 이해하기 위한 그의 방법에 따르면, 보편주의적인 관점으로는 역사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볼테르처럼 이성이라는 보편적 척도에 맞지 않는 역사적 사건들을 무시하고 중세 시대를 역사 서술에서 제외해서 로마 시대에서 르네상스 시대로 이어지게 하는 일은, 헤르더의 역사 설명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

헤르더는 개체성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바탕으로 역사가 연속적 성격을 가지면서 나선형적으로 발전해 나간다고 주장했다. 역사 서술에서 중세 시대를 제외한 볼테르의 입장과 달리, 헤르더는 중세를 계몽사상 시대의 도래를 위한 준비기였고 근대를 위한 기반이 되는 시대로 이해했다. 그리고 역사가 나선형적으로 발전한다는 그의 주장은 역사가 성장과 파괴, 건설의 과정을 반복하며 발전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는 볼테르의 직선적 역사 발전관과 다른 것이었다.

헤르더의 주장에 따르면, 역사의 파악과 역사 서술의 기본 단위는 민족이며 역사는 민족의 문화를 중심으로 발전한다. 따라서 헤르더는 문화적 민족주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1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는 특정 사상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서술되어 있다.
- ② (나)와 달리, (가)는 특정한 시대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대응되는 새로운 시대를 전망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사상가에 대한 평가가 시대별로 달라진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특정 개념에 대한 여러 학자의 논쟁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 ⑤ (가)는 특정 사상이 시대에 따라 변화되는 과정을, (나)는 특정 사상에 대한 학자들의 상반된 입장을 언급하고 있다.

13.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볼테르는 이성이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 ② 볼테르는 문화를 구성하는 것들을 화제로 역사를 서술했다.
- ③ 헤르더는 중세 시기가 없으면 근대 시기가 나타날 수 없다고 보았다.
- ④ 헤르더는 볼테르의 보편주의적 관점을 수용하여 개체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펼쳤다.
- ⑤ 헤르더는 특정 민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민족에 대한 선입관이 없어야 한다고 보았다.

14. ‘볼테르의 직선적 역사 발전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성이 시대를 거치면서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역사의 발전이다.
- ② 인류 전체의 역사가 후퇴와 단절 속에서도 연속하여 진전되는 것이다.
- ③ 역사가 발전하는 원인은 신의 섭리를 바탕으로 인간의 이성이 발전한다는 것이다.
- ④ 역사 서술의 발전은 역사를 신화적으로 서술해 나가는 것으로 이행되어 가는 과정이다.
- ⑤ 전 세계의 문화사를 서술하여 역사에서 이성이 변화하지 않고 정체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15. 윗글의 ‘볼테르’와 ‘헤르더’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볼테르는 4개의 시대를 거치면서 인간의 이성보다 문화가 더 완성에 가까워진다고 보았다.
- ② 헤르더는 서로 다른 민족 문화 사이의 우열을 판단하는 특정 기준은 없다고 보았다.
- ③ 헤르더는 각 민족의 문화는 자신이 처한 기후와 풍토에 따라 동일하지 않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 ④ 볼테르와 헤르더 모두, 문화는 인간의 생활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 ⑤ 볼테르에게 이성의 활동은 문화를 통해 드러나고, 헤르더에게 개체성은 각 민족의 문화에서 드러난다.

16. (가), (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는 한편, 피정복민의 관습을 존중해 주었던 알렉산드로스의 사후,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서지중해 일대를 장악한 로마에 의해 멸망되었다.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유능한 다섯 황제까지 약 200년간을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불렀다. 광대한 제국이 된 로마는 법률, 건축, 토목과 같은 실용적인 문화가 발달하였는데, 특히 법률이 발달하였다. 로마는 2세기 말부터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으로 몰락했다. 이후 중세 시대가 시작되었다.

- ① 볼테르의 관점에서 볼 때, 로마에서 발달한 법은 이성의 발전을 드러낼 수 있는 사료이겠군.
- ② 헤르더의 관점에서 볼 때, 알렉산드로스가 피정복민의 관습을 존중한 것은 각 민족의 개체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볼테르와 헤르더 모두의 관점에서 볼 때, 알렉산드로스 시대에서 아우구스투스 시대로 변화된 것은 역사의 발전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볼테르와 헤르더 모두의 관점에서 볼 때,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로마에 의해 멸망된 것은 문화의 퇴보와 파괴가 나타나는 역사적 과정이겠군.
- ⑤ 볼테르의 관점에서 볼 때 중세 시대는 역사 서술의 대상이 아니고, 헤르더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역사 서술의 대상이겠군.

17. 문맥상 ㉠ ~ ㉤과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바로잡혔다
- ② ㉡: 벌여 놓는
- ③ ㉢: 물러나
- ④ ㉣: 돌아가서
- ⑤ ㉤: 이바지했다고

[18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녹양방초 언덕에 소 먹이는 저 아이야
인간 영욕을 아는가 모르는가
인생 백년이 풀 끝에 이슬이라
삼만 육천 일이 그 아니 보잘것없는가
하물며 장수 단명이 운명이어니 사생(死生)을 정할쏘냐
여관 같은 세상에 하루살이같이 나왔다가

㉠ 공명도 못 이루고 초목같이 썩어지면

㉡ 공산 백골이 그 아니 느껴우냐

하늘의 뜻을 이어 법칙을 세움은 옛 성인의 사업이요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전함은 대장부의 할 일이라

생애는 유한하고 사일(死日)은 무궁하니

유한한 생애로 썩지 않을 이름을

영구히 전하여 ㉢ 천지와 함께 무궁하려고

(중략)

어와 그 뉘신고 어떠한 사람인고

형용이 초췌하니 초나라 대부 굴원이신가

잔흔이 영락하니 학사 유자후이신가*

눈썹을 찡그리시니 근심이 많으신가

발끝으로 서시니 어디를 바라는고

아름다운 기약을 바라는가 이별의 슬픔이 중하신가

㉣ 해 질 녘 대나무에 혼자 어둑히 있어서

내 근심 던져두고 무슨 말씀 하시는고

영락(榮落)은 운수에 달렸고 부귀는 재천(在天)이라

구한들 곁에 오며 던져둔들 어디 갈꼬

천생만물(天生萬物)하여 살아갈 일이 다 있으니

우리는 어리석어 대도(大道)를 몰라도

인생 저렇도다 소 치기에 아느니라

송아지 어미 좇아 녹음 간에 절로 놓여

푸성귀 뜯어 먹고 시냇물 흘러 마셔

누웠다 일어났다 하며 제 맘대로 다니기와

코뚜레 코에 끼고 긴 고삐 굳게 매어

곤 쯤대 삶은 쯤을 배까지 찰지라도

불 같은 여름 벌에 큰 쟁기 마주 매여

일생의 고단함이 저희 중에 불작시면

어느 것이 한가하고 어느 것이 괴로운고

일시에 빛나기야 희생(犧牲)*만 할까마는

헌 명석 물리치고 비단 거적 가로 덮고

밭줄 굴레 벗기고 붉은 실로 엮어내어

예관(禮官)이 고삐 들고 태묘(太廟)로 몰아가서

백정의 큰 도끼에 뼈마디가 흩어지니

저더러 물어보면 어느 소 되려 할꼬

우리는 잘 보아 내 분수만 지키려니

— 임유후, 「목동가」 —

* 형용이 ~ 유자후이신가: 굴원, 유자후는 귀양 가서 세상을 걱정하다가 죽은, 중국의 옛 문인임.

* 희생: 천지신명 따위에 제사를 지낼 때 제물로 바치는, 산 짐승.

(나)

홍진(紅塵)의 꿈 깬 지 이십 년이 어제로다

㉠ 녹양방초에 절로 놓인 말이 되어

때때로 고개를 들어 임자 그려 우노라

<제2수>

㉡ 장부의 몸이 되어 기한(飢寒)을 두려워할까

㉢ 일산(一山) 풍월(風月)에 즐거움이 가이 없다

내 마다*, 뜯구름 같은 부귀를 따를 줄이 있으랴

<제11수>

득군행도(得君行道)*는 군자의 뜻이로되

때를 못 만나면 고반(考槃)*을 즐겨 하니

맑은 송풍(松風) 산월(山月)이사 나뿐인가 하노라

<제12수>

— 장경세, 「강호연군가」 —

* 내 마다: 나는 싫구나.

* 득군행도: 임금의 신임을 얻어 도를 행함.

* 고반: 벼슬에 나가지 않고 자연에 묻혀 풍류를 즐김.

(다)

만물은 하나로부터 생겨나 각기 ‘나’가 된다. 내가 나를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다른 사람이 아프고 가려울 때에 나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그럴 때에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몸이 나누어져 생긴 거리가 어찌 이렇게 커졌나? 살아 있을 때는 나는 나, 남은 남으로 살지만 죽은 뒤에는 함께 하나로 돌아가 나도 없고 남도 없다. 옛 현인은 죽음을 참이라 여기고 삶을 거짓이라 여겼는데, 그 역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으리라.

배가 고파 음식을 먹으려 할 때는 잠깐도 몇 달 같지만, 배가 부르면 먹는 것을 잊는다. 힘들어 쉬려 할 때는 지척도 천 리 같지만, 편안해지면 쉬는 것을 잊는다. 이를 통해 안으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은 바깥의 상황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영예나 치욕도 바깥의 상황일 뿐이니 시장 길에서 쇠사슬에 묶이거나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게 되더라도 부끄럽지 않을 것이고, 보석으로 치장하고 수레를 타더라도 영예롭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삶은 낮, 죽음은 밤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면, 땡조나 노담의 장수를 부러워하지 않을 것이고 요절한 이를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만물은 본래 하나였는데 몸이 나누어지면서 서로 단절되었다. 몸은 밖에서 단절되고 정신은 내부에 갇혀, 나와 남이 서로 통하지 않게 되어 마침내 이기심이 생겨났다. 그리하여 좋고 싫음에 따라 서로 빼앗고, 이익과 손해에 따라 서로 공격하여 싸움이 번지고 혼란이 야기되었으니 참 측은한 일이다. 이 기심을 극복하면 몸이 장애물이 되지 않고, 순리대로 하면 정신이 갇히지 않을 것이니, 그러면 남이 내가 되고 내가 남이 되어 만물이 하나의 틀 안에 들어오고 삶과 죽음도 같은 것이 될 것이다.

북극의 아래와 남극의 위가 몇 억만 리나 되는지 나는 모른다. 동해의 서쪽과 남해의 북쪽이 몇 억만 리나 되는지 나는 모른다. 혼돈의 시작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것이며, 내가 죽은 뒤 세상의 종말까지는 또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흐를 것인가. 하늘과 땅은 무궁하고 과거와 현재는 다함이 없으니, 그 속에서 만물이 생겼다 사라지는 것이야말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이다. 보잘것없는 내 몸은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일 뿐이니 티끌이나 티끌보다 더 작은 존재요, 부싯돌 불이나 번갯불보다 더 빨리 지나가는 존재이다.

— 장유, 「방언」 —

1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상을 예찬하는 마음을 부각한다.
- ② (가)와 (다)는 모두, 일상적 소재를 나열하여 구체적 생활상을 보여 준다.
- ③ (나)와 (다)는 모두, 대비되는 두 공간을 제시하여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강조한다.
- ④ (가)~(다)는 점층적 표현을 사용하여 내적 갈등을 부각한다.
- ⑤ (가)~(다)는 비교되는 소재를 제시하여 대상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드러낸다.

19.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가)는 ‘소 먹이는 저 아이야’ 하고 말을 건네며 질문하는 화자와 그에게 ‘어와 그 뉘신고’라고 말하며 답변하는 화자가 등장하여 두 화자의 목소리로 시상이 전개된다. 작품은 화자가 달라지는 ‘어와 그 뉘신고’라는 구절을 기점으로 전반부의 ‘묻는 노래’와 후반부의 ‘답하는 노래’로 나뉜다.

- ① ‘장수 단명이 운명’이라는 말과 ‘영락은 운수에 달렸’다는 말에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이 있다는 것을 두 화자 모두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아름다운 이름을’ ‘영구히 전하’려고 한다는 말에 ‘천생만물 하여 살아갈 일이 다 있’다고 대답하는 것에서 삶에 대한 두 화자의 관점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군.
- ③ ‘아름다운 기약을 바라는가 이별의 슬픔이 중하신가’라고 말하는 것에서 답하는 노래의 화자가 상대가 근심스러워 보이는 이유를 짐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우리는 어리석어 태도를 몰라’라고 답변하는 것에서 답하는 노래의 화자가 자신의 무지를 인식하여 상대에게 배우고자 함을 알 수 있군.
- ⑤ ‘인생 저렇도다 소 치기에 아느니라’라고 말하는 것에서 답하는 노래의 화자가 자신의 생활 경험에 근거하여 질문에 답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20. (나)의 ‘나’의 관점에서 ㉠,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을 모두 멀리해야 하는 때도 있다.
- ② ㉠에서 생겨나는 ㉡의 즐거움에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
- ③ ㉠을 이루는 일로부터 물러나 ㉡을 즐겨야 하는 때도 있다.
- ④ ㉡이 주는 즐거움을 경계하고 ㉠의 성취에 뜻을 두어야 한다.
- ⑤ ㉡이 주는 즐거움을 누린 후 ㉠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1.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느끼는 후회의 감정을 드러낸다.
- ② ㉡: 삶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한 욕망을 드러낸다.
- ③ ㉢: 임과 이별한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나타낸다.
- ④ ㉠: 속세를 잊고 근심 없이 사는 자신의 모습을 나타낸다.
- ⑤ ㉢: 가난을 두려워하는 자신의 심정을 드러낸다.

22.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사대부 문인들은 문학을 통해 바람직한 삶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형상화했다. 벼슬길에 나아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관인의 삶을 추구하기도 하고 정치 현실에서 물러나 자연을 즐기는 처사의 삶을 긍정하기도 하며, 그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 외부 세계에 구애받지 않는 초연한 삶을 지향하기도 했다.

- ① (가)의 ‘여관 같은 세상에 하루살이같이 나왔다가’, ‘대장부의 할 일이라’에서 화자는 삶을 잠시 지나가는 것으로 인식하며 처사의 삶을 지향하고 있군.
- ② (가)의 ‘뻐마디가 흠어지니’, ‘어느 소 되려 할꼬’에서 화려한 관인의 삶을 ‘희생’에 빗대어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바람직한 삶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군.
- ③ (나)의 ‘뜯구름 같은 부귀를 따를 줄이 있으랴’에서 화자는 자연에서의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처사의 삶을 지향하고 있군.
- ④ (나)의 ‘맑은 송풍 산월이사 나쁜인가 하노라’에서 화자는 현재의 삶에 대한 자족감을 드러내며 처사의 삶을 긍정하고 있군.
- ⑤ (다)의 ‘만물이 생겼다 사라지는 것이야말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에서 글쓴이는 삶의 찰나적 속성을 강조하며 삶의 욕망에 초연한 삶을 지향하고 있군.

23.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람들이 ‘보석으로 치장하’는 것과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것을 ‘영예나 치욕’으로 여기는 것은 정신이 몸에 갇혀 ‘바깥의 상황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 ② 사람들이 ‘팽조나 노담의 장수를 부러워하’고 ‘요절한 이를 슬퍼하’는 것은 ‘몸이 장애물이 되어’ ‘삶은 낮, 죽음은 밤과 같다’고 여겨 삶과 죽음을 다른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 ③ ‘나와 남이 서로 통하지 않게 되어’ ‘싸움이 번지고 혼란이 야기’된 것은 사람의 정신이 그 몸에 얽매어 ‘만물은 본래 하나’라는 사실을 잊게 되었기 때문이다.
- ④ ‘순리대로 하면’ ‘남이 내가 되고 내가 남이 되’는 것은 정신이 몸에 갇히지 않아 ‘몸이 나누어져 생긴 거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 ⑤ ‘무궁’한 세상과 ‘다함이 없’는 시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기심’이 부질없는 것은 몸이 ‘터럭보다 더 작은 존재’이고 ‘번갯불보다 더 빨리 지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24~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팽이가 돈다
어린아해이고 어른이고 살아가는 것이 신기روی
물끄러미 보고 있기를 좋아하는 나의 너무 큰 눈 앞에서
아이가 팽이를 돌린다 / 살림을 사는 아해들도 아름다움듯이
노는 아해도 아름다워 보인다고 생각하면서
손님으로 온 나는 ㉠ 이 집 주인과의 이야기도 잊어버리고
또 한번 팽이를 돌려주었으면 하고 원하는 것이다

도회 안에서 쫓겨다니는 듯이 사는

나의 일이며 / 어느 소설보다도 신기로운 나의 생활이며
모두 다 내던지고
점잖이 앉은 나의 나이와 나이가 준 나의 무게를 생각하면서
㉡ 정말 속임 없는 눈으로 / 지금 팽이가 도는 것을 본다
그러면 팽이가 까맣게 변하여 서서 있는 것이다

**누구 집을 가보아도 나 사는 곳보다는 여유가 있고
바쁘지도 않으니 / 마치 별세계(別世界)같이 보인다**

팽이가 돈다 / 팽이가 돈다

팽이 밑바닥에 끈을 돌려 매이니 이상하고
손가락 사이에 끈을 한끝 잡고 방바닥에 내어던지니
소리없이 회색빛으로 도는 것이

오래 보지 못한 달나라의 장난 같다

팽이가 돈다 / 팽이가 돌면서 나를 올린다

제트기 벽화 밑의 나보다 더 뚱뚱한 주인 앞에서

나는 결코 울어야 할 사람은 아니며

영원히 나 자신을 고쳐가야 할 운명과 사명에 놓여 있는

이 밤에 / 나는 한사코 방심조차 하여서는 아니 될 터인데

팽이는 나를 비웃는 듯이 돌고 있다

비행기 프로펠러보다는 팽이가 기억이 멀고

㉢ 강한 것보다는 약한 것이 더 많은 나의 착한 마음이기에

팽이는 지금 수천 년 전의 성인(聖人)과 같이

내 앞에서 돈다 / 생각하면 서러운 것인데

너도 나도 스스로 도는 힘을 위하여

공통된 그 무엇을 위하여 울어서는 아니 된다는 듯이

서서 돌고 있는 것인가

팽이가 돈다

팽이가 돈다

— 김수영, 「달나라의 장난」 —

(나)

바람 부는 대숲에 가서

대나무에 귀를 대보라

둘째딸 인혜는 그 소리를 대나무 속으로 흐르는 물소리라 했다
언젠가 청진기를 대고 들었더니 정말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고 우긴다

나는 저 위 뗏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나는 소리가

대나무 텅 빈 속을 울려 물소리처럼 들리는 거라고 설명했다

㉣ 그 뒤로 아이는 대나무에 귀를 대지 않는다

내가 대숲에 흐르는 수천 개의 작은 강물들을

아이에게서 빼앗아버렸다

저 지하 깊은 곳에서 하늘 푸른 곳으로 다시

아이의 작은 실핏줄에까지 이어져 흐르는

세상에 다시없는 가장 길고 맑은 실개천을 빼앗아버린 것이다

바람 부는 대숲에 가서

대나무에 귀를 대고 들어보라

그 푸른 물소리에 귀를 씻고 입을 행구고

㉤ 푸른 뗏가지가 후려치는 회초리도 몇 대 아프게 맞으며

— 복효근, 「대숲에서 뉘우치다」 —

2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현재형 표현으로 현장감을, (나)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대상의 생동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② (가)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나)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여 대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③ (가)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주제 의식을, (나)는 공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의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시상을 전환하여 외적 상황의 변화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25.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가)의 ‘나’는 팽이가 도는 것을 보며 주체적 삶의 모습을 떠올리고, 자신의 고단한 생활과 주체성이 결여된 삶을 성찰하고 있다. (나)의 ‘나’는 동심을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딸 아이와 대숲에서 경험한 일을 계기로 되돌아보며, 자연에 내재한 풍부한 생명력을 깨닫고, 자연과 인간을 서로 연결되어 교감하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

- ① (가)의 ‘도회 안에서 쫓겨다니는 듯이 사는’과 ‘누구 집을 가보아도 나 사는 곳보다는 여유가 있고’에서 ‘나’의 생활이 고단함을 알 수 있군.
- ② (가)의 ‘팽이가 돌면서 나를 올린다’와 ‘팽이는 나를 비웃는 듯이 돌고 있다’에서 ‘나’가 팽이가 도는 모습을 보며 주체성이 결여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가)의 ‘스스로 도는 힘을 위하여’ ‘서서 돌고 있는 것인가’에서 ‘나’가 팽이가 도는 것으로부터 주체적 삶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나)의 ‘뗏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나는 소리’를 ‘물소리처럼 들리는 거’라고 하는 말에서 ‘나’가 자연에 내재한 풍부한 생명력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나)의 ‘저 지하 깊은 곳에서’ ‘아이의 작은 실핏줄에까지 이어져 흐르는’ ‘가장 길고 맑은 실개천’에서 ‘나’가 자연과 인간을 서로 연결되어 교감하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26.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주인’과 이야기하는 것도 잊을 만큼 땀을 바라보는 일에 열중하는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② ㉡: 자신의 삶에 대한 의구심을 버리고 사물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 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 땀이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④ ㉣: 아이에게 나타난 변화가 자신의 탓이라는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자신의 과오에 대한 질책을 받아들여려 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7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버지 입에서 그 집을 사자고 처음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머니는 달갑잖은 표정이었다. 직접 가서 집을 둘러볼 때도 마찬가지로 표정이었고, 형 역시 못마땅한 내색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지쳐 있었다. 여러 해를 여기 저기 잠깐씩 남의 집만 전전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전에 **우리가 살던**, 크고 좋은 집은 아버지 친구 되는 사람한테 어처구니없이 **빼앗겨** 버렸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소문난, 아버지의 고향 친구 심 씨였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여 한참 빚쟁이들한테 물리고 있을 때 그 심 씨가 나타나서 묘책을 일러 주었다. 친구의 권고에 따라 아버지는 집문서와 인감도장을 내주었다. 집을 심 씨의 소유로 위장하여 그거라도 건져 보자는 속셈이었다. 곤경에 빠졌을 때 찾아와서 위로하고 충고해 주는 고향 친구가 아버지한테는 친형제만큼이나 살가웠을 것이다. 도장을 넘겨주면서 아버지는 심 씨의 손을 붙잡고 고맙다는 인사를 수없이 했다. 심 씨는 일주일 후에 다시 찾아왔다. 찾아와서 대뜸 하는 말이, 집을 비워 달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괜히 한번 그래 보는 줄 알았던 모양이다. 아버지는, 농담이 너무 지나치다면서 그냥 실실 웃어넘기려 했다. 그런데 심 씨의 얼굴에서는 끝내 웃음을 찾을 수 없었다. 나중엔 화를 버럭 내면서, 집달리*를 데려온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어머니는 방바닥을 치면서 대변에 울음을 터뜨렸고, 형은 몸집이 큰 심 씨의 아랫도리에 찰거머리처럼 늘어붙어 도나캐나 주먹을 놀리기 시작했다. 이삿짐을 꾸리느라고 온통 수라장이 된 집 안을 둘러보며 ㉠ **넋 나간** 표정을 짓던 아버지의 옆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고향 친구한테 사기를 당한 후로 **셋방**을 찾아 자주 이사를 다니면서 아버지의 그런 표정은 줄곧 눈에 띄었다. 우리가 주인집 아이들이라도 때려 말썽이 생겼을 경우에는 더욱 그러했다. 우리는 우리대로, 그리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셋방살이에 아주 넉넉머리가 나 있었으므로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었다. 집이 좀 차해도 아무려면 내 집인데 셋방보다야 못할까 -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우리는 쉽게 아버지의 의사에 굽혀 그 집을 사는 데 동의했던 것이다. 어머니는 이제 **마음대로 팔래**를 낼 수 있고, **물을 얼마든지 많이 길어다** 먹어도 괜찮게 되었다. 술이 잔뜩 취해서 좀 늦게 돌아와도 누가 시비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버지는 안심하고 대문을 팡팡 두들길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방 안에만 틀어박혀 소란을 피운다고 날 곳은 날 밖으로 쫓겨날 이유가 없어졌으며, 무엇보다도 다행인 것은 동네 아이들 아무하고나 **대동한** 위

치에서 맞붙어 **실력으로 승부를 가릴 수 있게** 된 그 점이 었다. 허약하게 생긴 녀석이 공연한 트집을 잡아 텃세를 하고 코앞에서 쥐새끼처럼 용용거리는데도 상대가 주인집 아들이기 때문에 꼭 참지 않으면 안 되는 셋방 신세의 아이들은 얼마나 불행한가. 정말 오랜만에 **온채를 차지하고 살게** 되어 판잣집의 허술한 외양과는 조금도 상관없이 우리는 꽤나 들뜬 상태에 있었고, **더부살이** 신세를 동정하는 여유마저도 생겼다.

[중략 부분 줄거리] 판잣집이 철거된다는 소식을 들은 가족은 이웃과 철거를 막으려 하지만 수포로 돌아간다.

형도 마찬가지였다. 형은 아까부터 자기 눈앞에서 어떤 기적 같은 게 일어나기를 갈망하는 표정으로 오직 아버지 행동 하나만을 주목하고 있었다. 난처한 입장에 빠진 아버지는 그 판국에 시장을 다시 만나야겠다는 핑계를 대면서 슬금슬금 꿈무니를 빼 버렸다. 그러나 뒤돌아서면서도 아버지는 배신자한테나 던지는 저 살벌한 눈초리를 뒤통수로 충분히 느꼈을 것이다. 더욱이 기대가 실망으로, 그리고 분노로 순식간에 변하는 ㉡ **형의 표정**을 못 읽었을 리 없다. 마침내 형이 소용돌이 속에 뛰어들었다. 형은 대뜸 작업 지휘자를 붙잡고, 자기가 허락하기 전엔 그 누구도 집을 부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는 어린애를 상대하고 있을 만큼 한가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형이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 길을 막는** 데야 그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는 듯했다. 큰 권한을 쥔 어른과 거기에 맞선 어린애 사이에 곧 열면 ㉢ **논쟁**이 벌어졌다. 당신이 무엇이기에 남의 집을 함부로 헐으려 하느냐고 형이 물었다. 나라의 명령이라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라고 책임자가 대답했다. 곁에서 보면 반쯤은 **농담으로 들리는 대화**가 한동안 계속되었는데, **서로 상대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당사자들은 그럴 수 없게** 진지했다. 나라에서는 왜 당신네들 집은 가만 놔두고 우리 동네에 있는 집만 부수라고 명령했는지 어디 한번 설명해 보라. 그건 이 동네에 있는 집들이 대개 나라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집을 부수는 건 잘못이다.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집을 못 짓게 하든가 서로 사고팔지 못하게 미리 막을 일이지,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네가 **몰라서 하는 말**이다. 나라에서는 진작부터 그런 일을 못 하게 해 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그렇게 해 나왔으면 어째서 여기에 집이 서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 집을 샀겠느냐. 시간이 없다. 그런 문제라면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가서 따져라. 나는 다만 위에서 하라는 대로 움직일 뿐이다. 자기들이 높으면 얼마나 높으냐. 이답에 커서 위대한 정치가가 되는 날이면 나는 제일 먼저 그 사람의 집부터 부수라고 명령을 내리겠다. 그러니 당신도 조심해라. 네가 커서 제발 그렇게 되기를 빌어 주겠다.

논쟁은 끝났다. **손을 번쩍 들어** 작업 책임자는 마을 초입에 있는 우리 집을 첫 번째로 가리켰다. 저마다 기다란 쇠사슬과 갈고리, 해머 같은 걸 하나씩 움켜쥔 인부들이 우리 집으로 우우 몰려갔다. 그들을 앞질러 형이 먼저 달려가서는 기둥에다 팍성냥을 드욱 그어 들며 불을 지르겠다고 날뛰었다. 그 꼴을 보다 못한 어머니가, 차라리 우리 손으로 태워 버리는 게 낫겠다고, 어서 집에 불을 댕기라고 고래고래 소래기를 질렀다. 그러자 형이 별안간 얌전해졌다. 형은 뜨거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 같았다. 성냥불이 손끝까지 타들어 가는데도 형은

그걸 그냥 손에 쥔 채 어머니 얼굴만 멀거니 쳐다보고 있었다. 형의 입에서 느닷없는 ㉠울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때를 같이하여 인부들도 집을 부수기 시작했다. 작업을 지켜보며 어머니는 자꾸만 이상한 몸짓을 보였다. 인부들이 해머로 벽을 팡팡 때리면 어머니는 손으로 옆구리를 만지면서 애구구, 하고 비명을 올렸다. 어떤 인부가 갈고리를 들어 지붕을 찌는 걸 보고 어머니는 머리를 감싸안은 채 눈을 꼭 감아 버렸다.

— 윤홍길, 「집」 —

* 집달리: 집행관의 옛 용어.

27.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의 추측을 제시하여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고하고 있다.
- ② 회상 장면을 삽입하여 인물들이 처한 상황의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 ④ 인물 간의 대화를 제시하여 인물이 겪은 사건의 비현실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들을 병치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지연시키고 있다.

28. ㉠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가족들이 상황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한다.
- ② ㉡은 문제 상황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낸다.
- ③ ㉢은 상황을 바꾸려는 어떤 시도도 안 한 것에 대한 자책감을 드러낸다.
- ④ ㉠과 ㉡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펼쳐진 것에서 비롯한다.
- ⑤ ㉡은 형이 아버지에게, ㉢은 형이 어머니에게 느끼는 실망감에서 비롯한다.

29.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작업 지휘자에게 ‘달라붙어 길을 막는’ 형의 행동은 ㉠로 이어진다.
- ② ㉠에서 ‘농담으로 들리는 대화’를 ‘당사자들은 그럴 수 없게 진지’하게 한 것은 ‘서로 상대방을 이해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 ③ ㉠에서 서로 ‘몰라서 하는 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한 것은 대화 당사자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 ④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가’라고 작업 지휘자가 말한 것은 ㉠을 통해 그와 형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 ⑤ 작업 지휘자가 ‘손을 번쩍 들어’ 우리 집을 가리킨 것은 ㉠을 통해 형이 이루려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3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집은 그곳에 사는 사람의 삶과 태도에 영향을 주는 장소이다. 사람들은 집을 통해 생활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고 정서적, 사회적 안정감을 얻기를 바란다. 집의 의미는 사람이 집과 맺는 관계에 따라 다양해서, 어떤 이에게 집은 유대감을 느끼는 대상으로 자신과 동일시되며 때로는 욕망 실현을 위한 물질적 대상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 ① 고향 친구를 숙여 ‘우리가 살던’ 집을 빼앗은 것에서 심 씨에게 ‘우리가 살던’ 집이 욕망 실현을 위한 물질적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집을 산 이후 ‘마음대로 빨래를 널’고 ‘물을 얼마든지 많이 길어다 먹’을 수 있게 된 것에서 우리가 집을 통해 생활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③ 집을 산 이후 동네 아이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실력으로 승부를 가릴 수 있게 된’ 것에서 우리가 집을 통해 사회적 안정감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온채를 차지하고 살게’ 된 후 ‘더부살이 신세를 동정하는’ 것에서 우리가 ‘셋방’에 유대감을 느끼게 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⑤ 인부들이 해머로 우리 집의 ‘벽을 팡팡 때’릴 때 어머니가 ‘손으로 옆구리를 만지’며 ‘비명을 올’리는 것에서 어머니에게 집이 자신과 동일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31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순직소가 부친의 편지를 받고 급하게 뜯어 보니 죄를 입어 백의종군으로 변방으로 가게 된 이야기와 여 승상의 죽음으로 죽음을 면한 사연이 있었다. 특히 여 승상이 혼사를 정한 것과 이 혼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함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또 “네가 어릴 때부터 글을 읽어 의리를 잘 아는지라. 모름지기 부모 명령의 경중을 이해하고, 계씨 집안의 작은 정과 여 승상 집안의 큰 은혜의 경중을 잘 헤아려 다시 전처럼 고집을 부리지 말고 편지를 받은 날로 바로 집으로 돌아가 여씨 집안과의 혼사를 이루어 멀리 있는 아버지를 위로하라.”라고 별도로 말을 하였다.

순직소는 주 씨와 함께 부친의 편지를 보고는 부친이 큰 화를 면하였지만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매우 슬퍼하였다. 이에 주 씨가 순직소에게 말하였다.

“소저는 계일지와 나이, 재주, 외모 등이 모두 알맞아 하늘이 둘의 인연을 내렸다고 생각하였는데, 오늘 이처럼 되고 보니 ㉠ 하늘의 뜻이 계일지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알 것 같군요. 소저는 계일지와 함께 지냈고, 공부하면서 서로의 재주를 공경하였으며, 둘 사이에 조금도 구차한 일이 없었습니다. 비록 혼담을 주고받았으나 몸을 허락한 적이 없었으니 최앵앵과 왕교란처럼 남자와 함께 야반도주하는 일은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절개를 잃어버리면서 살기를 바라고, 죽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과는 함께 의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정도의 상황에 처하면 소저는 부친의 명을 따라 스스로 자신의 복을 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순직소가 크게 한숨을 쉬며 탄식하여 말하였다.

“진실로 작은어머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부친이 지금 사생의 기로에 계시는데 한나라 시절 제영처럼 황제에게 부친을 용서해 달라는 상소를 올리지는 못할망정 혼사를 의논해야겠습니까?”

주 씨가 말하였다.

“㉢ 소저의 말이 맞습니다. 여 승상 아들에게 편지를 써 부친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혼례를 치르는 것이 좋겠다고 전하십시오.”

순직소가 비록 말은 이렇게 했지만 계일지와 의 언약을 생각하면 간장이 끊어지는 듯하였다. 배를 돌려 개봉부 동문에 매고 이날 밤이 새도록 생각했지만 이 위기에서 벗어날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탄식하며 말하였다.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죽는데 무슨 상관이었는가! 그러나 이 자리에서 죽는 것은 분명한 명분이 없으니 부친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죽음으로 설득한 후 그 뜻을 얻지 못한다면 그때 목숨을 버려 계일지와 의 의리를 지키리라.”

갑자기 생각해 보니 지난날 부용헌에서 계일지와 맹세할 때 계일지가 죽음으로 맹세하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마치 오늘의 일을 미리 예상한 듯하였다.

‘슬프다! 계일지의 정은 나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자이고 형제도 있지만 계일지는 외아들이라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과 혼인하지 않는 일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 나를 제외하고 누가 계일지와 혼인할 수 있었는가? 만일 계일지가 배필을 잘못 얻어 금슬지락의 즐거움을 이루지 못한다면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갑자기 일어나며 한 가지 일을 생각하였다.

‘내가 지금 죽는다면 계일지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으니, 나

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추천한다면 이 또한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옥청관의 여도사인 정현이 말하던 설유란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림을 통하여 보면 그 외모가 매우 아름다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족자의 글과 글씨 또한 다른 사람이 대신 쓴 것이 아닐 것이니, 만일 설유란을 얻어 계일지의 배필로 삼으면 계일지를 위하여 ㉣ 내가 더 이상 해 줄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계일지가 지금은 멀리 있어서 설씨 집안에서는 나의 말만 믿고 계일지와 설유란의 혼사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 아아, 정말 모든 일이 허사로다.’ 그러다가 다시 생각하였다.

‘계일지가 우연히 지나가는 손님으로 설유란의 초상화를 보고 무심히 쓴 글을 설유란이 관심을 갖고 본 후 한 편의 글을 다시 쓴 것으로 본다면 두 사람의 인연은 하늘의 뜻일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설씨 집안의 상황을 보고 설유란이 정혼할 곳이 없으면 계일지를 위하여 중매를 자청할 것이다. 만일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의 정성이 극진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중략 부분 줄거리] 계일지가 쓴 것처럼 꾸며서 보낸 순직소의 글을 보고 의양 군주는 계일지를 사윗감으로 여겨 만나기를 청하나 순직소는 병을 핑계로 만남을 미룬다.

그럭저럭 여러 날이 지나가고 올해가 거의 다 되어 가니 의양 군주는 혼사가 지연되는 것을 민망하게 생각하였다. 또한 계일지의 병이 이처럼 오래가지는 않을 것임을 알고는 일부러 청병하여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는 한번 보기를 계속 재촉하였다.

이에 순직소는 이렇게 거부만 해서는 혼사가 성사되지 못할 것이므로 자신이 직접 계일지를 위하여 수고로움을 사양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가만히 주 씨와 난지 등과 함께 의논하여 시장에서 유생의 복장을 구입한 후 순직소가 직접 입어 ㉦ 남장을 한 후 의양 군주 집에 나아가 명함을 드리니 의양 군주가 매우 기뻐하였다. 이에 의양 군주는 취향각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남장을 한 순직소를 청하여 먼저 앉게 하였다. 그리고 시비로 하여금 주렴을 가져다가 중당을 가려 막게 하고는 모든 시비들이 의양 군주를 옹위하여 발 안으로 들어왔다. 남장을 한 순직소가 일어나 피하러 하다가 두 번 절을 하였다. 이에 의양 군주가 발 안쪽에서 답례하였다. 의양 군주가 발 안에서 남장을 한 순직소를 계일지로 알고 그를 보니 백옥과 명주처럼 광채가 사면에 비추었다. 의양 군주가 크게 놀라면서 ‘세상에 이런 미남자가 있는가? 설유란의 배필이로다.’라고 생각하고는 유모를 통하여 말을 전하였다.

— 작자 미상, 「홍백화전」 —

31.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순직소는 부친이 죽음은 면하였으나 변방에 가게 된 소식을 듣고 슬퍼한다.
- ② 부친은 여 승상에게 받은 은혜가 계씨 집안과 맺은 정분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③ 주 씨는 계일지와 순직소가 서로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지만 순직소에게 부친의 뜻을 따를 것을 권한다.
- ④ 부친은 여씨 집안과의 혼사가 불가피한 일임을 언급하며 순직소에게 바로 집으로 돌아갈 것을 명한다.
- ⑤ 주 씨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걱정하는 순직소를 안심시키기 위해 최앵앵의 이야기를 들어 위로의 말을 한다.

3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설유란이 정혼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다.
- ② ㉠은 의양 군주에게 계일지의 병을 감추려고 선택한 방법이다.
- ③ ㉠을 의심하여 의양 군주는 주렴으로 중당을 가린 채 순직소를 맞이했다.
- ④ ㉠을 통해 의양 군주를 만난 결과 설유란에 대한 순직소의 생각이 바뀌었다.
- ⑤ ㉠을 결정한 것에는 계일지를 직접 보기 원하는 의양 군주의 거듭된 요구가 영향을 미쳤다.

33. ㉡ ~ ㉣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계일지의 능력에 대한 주 씨의 부정적 견해를 드러낸다.
- ② ㉢: 상대의 말을 듣고 혼인의 시기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음을 드러낸다.
- ③ ㉣: 계일지가 자기 이외의 사람과는 혼인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드러낸다.
- ④ ㉡: 계일지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무력감을 드러낸다.
- ⑤ ㉣: 자신이 설유란을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홍백화전」에서 여성 주인공은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일련의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노력한다. 자식 된 도리를 지키려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정 등을 동기로 행동하거나, 이를 타당한 명분이나 근거로 삼아 자신의 말과 행동을 정당화한다.

- ① ‘부친의 명을 따르자는 주 씨의 말에 수긍했지만 ‘간장이 끓어지는 듯하’는 것에서 순직소가 자식 된 도리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정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부친이 ‘사생의 기로에’ 있는데 ‘혼사를 의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것에서 순직소가 자식 된 도리를 명분으로 삼아 자신의 말에 타당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이 자리에서 죽’지 않고 ‘부친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고 한 것에서 순직소는 타당한 명분에 따라 행동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군.
- ④ ‘부용헌에서 계일지와 맹세할 때’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계획을 바꾸는 것에서 순직소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나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추천’하려는 것에서 순직소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 자식 된 도리에 따라 행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은 일치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을 살펴봄으로써 국어 발음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다.

먼저 음운 체계 측면에서 살펴보면, 표준 발음법 제4항에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는 단모음(單母音)으로 발음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 발음을 살펴보면 어떤 방언에서는 ‘ㄱ’과 ‘ㄴ’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단모음으로 발음하기도 한다. 또한 여러 방언에서는 ‘ㄱ’과 ‘ㄴ’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단모음으로 발음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발음하는 단모음의 개수가 표준 발음법에서 규정한 것과 다를 수 있다. 한편 단모음 중 ‘ㄱ’, ‘ㄴ’에 대해서는 표준 발음법 제4항의 [붙임]에서 “ㄱ, ㄴ”은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제4항의 [붙임]을 고려하면 표준 발음으로 발음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발음하는 단모음의 개수가 다를 수 있다.

다음으로 음운 변동 측면에서 살펴보면,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고 대부분의 방언에서도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이 있다. 음절 끝에서 소리가 날 수 없는 자음이 음절의 끝에 왔을 때 ‘ㄱ, ㄷ, ㅂ’ 중 하나로 바뀌는 ㉠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ㄱ, ㄷ, ㅂ’이 비음인 ‘ㄴ, ㄹ’ 앞에서 비음으로 바뀌는 ㉡ 비음화는 대부분의 방언에서 일어나고, 표준 발음으로도 인정된다.

반면에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는 음운 변동 중에는 방언에 따라 일어나는 양상에 차이를 보이는 것도 있다. 거센소리되기의 경우, ‘ㅎ’이 ‘ㄱ, ㄷ, ㅂ, ㅅ’보다 앞에 위치해 일어나는 ㉢ 순행적 거센소리되기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고 대부분의 방언에서도 일어난다. 하지만 ‘ㅎ’이 이들 자음 뒤에 위치해 일어나는 ㉣ 역행적 거센소리되기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어떤 방언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중성에 두 개 이상의 자음이 올 경우 한 자음이 탈락하는 ㉤ 자음군 단순화는 대부분의 방언에서 일어나지만 방언에 따라 탈락하는 자음이 표준 발음과 다를 수 있다.

35.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비음화는 대부분의 방언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이다.
- ② 대부분의 방언에서는 중성에서 하나의 자음만 발음된다.
- ③ 거센소리되기는 경우에 따라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④ 표준 발음으로 발음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발음할 수 있는 단어도 있다.
- ⑤ 표준 발음법에서 규정한 단모음보다 적은 수의 단모음을 발음하는 방언이 존재한다.

36. 윗글과 <자료>를 바탕으로 표준 발음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자 료 >

[표준 발음법]

제9항 받침 ‘ㄱ, ㅋ’, ‘ㄴ, ㄷ, ㅈ, ㅊ, ㅅ, ㅌ’, ‘ㅇ’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제11항 겹받침 ‘ㄹ, ㄺ, ㄻ’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ㄹ, ㅂ]으로 발음한다.

다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ㄹ’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제12항 받침 ‘ㅎ’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1. ‘ㅎ(ㄸ, ㅌ)’ 뒤에 ‘ㄱ, ㄷ, ㅈ’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ㅋ, ㅌ, ㅊ]으로 발음한다.

[붙임 1] 받침 ‘ㄱ(ㄷ), ㄷ, ㅂ(ㄹ), ㅅ(ㅌ)’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도, 역시 두 음을 합쳐서 [ㅋ, ㅌ, ㅊ, ㅊ]으로 발음한다.

제18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ㅂ), ㄴ(ㄴ, ㄷ, ㅈ, ㅊ, ㅅ, ㅌ, ㅎ), ㄹ(ㄹ, ㄺ, ㄻ, ㅁ)’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한다.

- ① ‘창밖’의 표준 발음 [창박]은 ㉠과 ㉡이 일어난 발음으로서, 제9항이 적용되는 예로 제시할 수 있다.
- ② ‘읽고’의 표준 발음 [일꼬]는 ㉢이 일어난 발음으로서, 제11항이 적용되는 예로 제시할 수 있다.
- ③ ‘끓고’의 표준 발음 [끈꼬]는 ㉣이 일어난 발음으로서, 제12항의 1이 적용되는 예로 제시할 수 있다.
- ④ ‘놓는’의 표준 발음 [논는]은 ㉠과 ㉡이 일어난 발음으로서, 제12항의 [붙임 1]이 적용되는 예로 제시할 수 있다.
- ⑤ ‘옴는’의 표준 발음 [음는]은 ㉠, ㉢, ㉣이 일어난 발음으로서, 제18항이 적용되는 예로 제시할 수 있다.

37. <보기>의 ㄱ~ㅁ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ㄱ. 마을 사람들은 그가 가족과 만나기를 바란다.
- ㄴ. 그들은 옛 친구가 살던 동네에서 시간을 보냈다.
- ㄷ. 어제 동생은 무역 회사에 다니는 사람을 만났다.
- ㄹ. 나는 문득 그가 나에게 호의를 가졌음을 느꼈다.
- ㅁ. 뒷산에서 다리를 다친 언니는 병원에 입원하였다.

- ① ㄱ과 ㄷ의 안긴문장에는 모두, 필수적 부사어가 있다.
- ② ㄱ의 안긴문장은 목적어 기능을 하고, ㅁ의 안긴문장은 관형어 기능을 한다.
- ③ ㄴ의 안긴문장에는 필수적 부사어가 생략되어 있고, ㄹ의 안긴문장에는 생략된 필수 성분이 없다.
- ④ ㄴ과 ㄷ의 안긴문장은 모두,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
- ⑤ ㄹ과 ㅁ의 안긴문장에는 모두, 필수적 부사어와 목적어가 있다.

38.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용언은 활용을 하기 때문에 어간과 어미로 나눌 수 있으며 어미에는 어말 어미와 선어말 어미가 있다. 용언이 복합어인 경우에 합성어 용언의 어간은 ‘어근+어근’으로 구성되어 있고, 파생어 용언의 어간은 ‘접두사+어근’ 혹은 ‘어근+접미사’로 구성되어 있다.

- 뛰는 토끼 잡으려다 잡은 토끼 ㉠ 놓친다.
- 치료 시기를 ㉡ 넘기면 건강을 ㉢ 되찾기 어렵다.
- 책임자는 건물의 완공일을 일주일 정도 ㉣ 앞당겼다.
- 그는 흙과 모래를 ㉤ 뒤섞는 일을 혼자 ㉥ 끝마치곤 했다.

- ① ㉠과 ㉤은 동일한 선어말 어미가 쓰였다.
- ② ㉡과 ㉢은 어간에 동일한 접사가 쓰였다.
- ③ ㉢과 ㉤의 어간은 접두사와 어근으로 구성되었다.
- ④ ㉢은 두 개의 선어말 어미와 한 개의 어말 어미가 쓰였다.
- ⑤ ㉤의 어간은 어근과 접미사로 구성되었다.

39.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선생님: 중세 국어의 체언 중에는 뒤에 오는 조사에 따라 형태가 달리 실현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현대 국어에서 ‘나무’, ‘하루’를 의미하는 중세 국어의 단어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조사 ‘와’와 결합할 때 ‘나모’, ‘하르’의 형태로 나타났고, ‘와’를 제외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 ‘납’, ‘홀르’의 형태로 나타났어요. [예문]에서 이 단어들은 조사 ‘마다’, ‘와’, ‘도’, ‘은’과 결합하고 있는데, 그럼 이 단어들은 ㉠~㉤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문]

- ㄱ. 나비 (㉠) 들었다 하느다
[원숭이가 나무마다 매달렸다 한다]
- ㄴ. (㉡) 홀ㄴ로 하며
[나무와 흙으로 하며]
- ㄷ. (㉢) 뵈 업시 묻히시더니라
[하루도 뵈 없이 하지 못하였다]
- ㄹ. (㉣) 조심 아니하사
[하루는 조심하지 아니하셔]

- | | ㉠ | ㉡ | ㉢ | ㉣ |
|---|------|-----|-----|----|
| ① | 나모마다 | 나모와 | 하르도 | 하르 |
| ② | 나모마다 | 납과 | 홀르도 | 하르 |
| ③ | 나모마다 | 나모와 | 하르도 | 홀르 |
| ④ | 납마다 | 납과 | 하르도 | 홀르 |
| ⑤ | 납마다 | 나모와 | 홀르도 | 하르 |

[40~43] (가)는 실시간 인터넷 방송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제작한 행사 홍보 포스터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진행자: △△도청에서 운영하는 ‘우리 고장 홍보 채널’의 진행자 방랑객입니다. 이 방송은 실시간 방송이니 시청하다가 질문이 있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은 실시간 대화창에 글을 올려 주세요. 매주 화요일에는 우리 지역 명소를 소개해 드리는데요, 오늘은 유명 여행가이자 작가 이신 ○○ 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가: 안녕하세요. ○○입니다. 실시간 방송이라 떨리네요.

진행자: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 시청자 여러분의 섭외 요청이 쇠도했던 만큼 다들 너무 반가워하시네요. 몇 주 전부터 우리 지역에 있는 ◇◇강 주변의 관광 명소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곳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여행가: 바로 ◇◇강 주상절리 길입니다. 제가 방금 화면에 띄운 사진이 잘 보이시나요? 여기가 뭐로 보이나요?

진행자: 절벽에 붙어 있는 산책길이네요.

여행가: 그렇죠. 바로 ◇◇강 주상절리 길입니다. 총 길이 3.6km, 폭 1.5m의 잔도로, 협곡 사이를 걸으며 주상절리가 만든 멋진 풍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해외 명소 부럽지 않은 비경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진행자: 지금 실시간 대화창에 질문이 많이 올라 오네요.



코코넛: ‘잔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무엇인가요?



달빛: 주상절리는 화산 지형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진행자: ‘코코넛’ 님이 ‘잔도’를 궁금해하시는데요,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행가: 잔도는 험한 벼랑 같은 곳에 낸 길로, 절벽에 붙여 선반처럼 설치됩니다. 그래서 아래로 강이 보이죠.



사자후: 헉! 아래로 강이 보여요? 너무 무섭겠다!!!

진행자: ‘사자후’ 님이 무섭겠다고 하시네요.

여행가: ㉡ 거기보다 더 무서운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바닥이 유리인 전망대인데요, 전망대가 잔도 중간에 반원 형태로 돌출되어 있는 구조라서 허공 위를 걷는 느낌이지요. 그런데 무서움보다는 긴장 속에서 느껴지는 짜릿함이 훨씬 커요.

진행자: ‘사자후’ 님,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참! ○○ 님, 주상절리가 화산 지형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달빛’ 님의 질문도 있었잖아요.

여행가: ㉢ 아, ◇◇강은 화산 폭발로 형성된 강입니다. 주상절리 길을 걷다 보면 여러 개의 다리를 건너게 되는데요, 거기서 볼 수 있는 지질학적 특성에 따라 각각의 다리에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화강암교’에서는 지하 깊은 곳의

용암이 서서히 굳어서 생긴 암석을 볼 수 있고, ‘현무암교’에서는 지표로 분출된 용암이 식어서 생긴 암석을 볼 수 있죠. 다리를 건널 때 화산 폭발의 흔적을 찾아보는 것도 묘미입니다.

진행자: 다리 이름을 통해 주변의 지질학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저도 전에 가 봤는데, 거기에서 폭포도 보이더라고요. 폭포가 참 멋있던데, 사진 찍기에도 좋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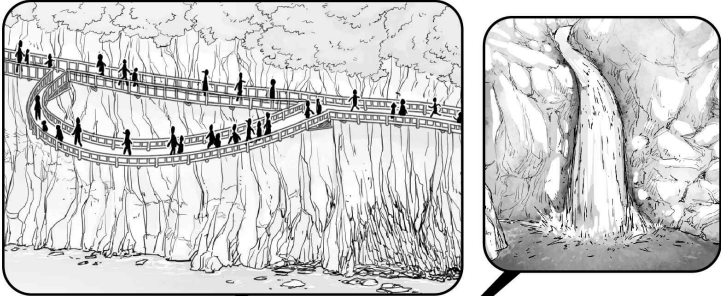
여행가: 맞아요, 멋있죠! ㉔ 그 폭포 앞에서 기념 사진을 찍어서 누리 소통망에 한번 올려 보세요.

진행자: 벌써 끝날 시간이에요. 우리 △△도청에서는 여행가 ○○님과 함께하는 행사를 준비했어요. 오늘 소개한 명소를 함께 걷는 거죠. ㉕ 저희 채널 게시판에 행사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 올릴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은 이를 참고해서 신청해 주세요.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나)

△△도청

유명 여행가 ○○과 함께하는 두박두박
해외 명소 부럽지 않은 비경
◇◇강 주상절리 길 도보 여행
2024. 10. XX. (토)




09:00 A 매표소 출발 09:30 유리 전망대 체험 10:30 폭포 앞 기념 촬영 11:00 B 매표소 도착

참가자 혜택

- ○○의 친필 서명 도서 증정
- ○○과의 완주 기념 사진 촬영

우측의 QR 코드를 통해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문의: △△도청 관광홍보팀 (☎ xxx-xxx-xxxx)



40. (가)에 나타난 정보 전달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행자’는 시청자가 방송 흐름을 예상할 수 있도록 방송을 시작하면서 방송 내용의 순서를 안내하였다.
- ② ‘진행자’는 시청자와 의사소통을 실시간으로 하기 위해 시청자에게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였다.
- ③ ‘진행자’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여행가’가 소개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하였다.
- ④ ‘여행가’는 소개하는 대상의 규모를 시청자가 가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한 정보를 전달하였다.
- ⑤ ‘여행가’는 ‘진행자’의 요청에 따라 시청자가 궁금해하는 대상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41. 다음은 (가)가 종료된 후에 달린 댓글이다. 시청자들의 매체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굴향: 제가 좋아하는 『나의 유럽 여행』의 저자가 직접 소개한 여행지라니!! 작가님의 추천을 믿고 꼭 가 볼게요.

몽계구름: 주상절리 길이 비유적인 이름이라고 생각했는데, ◇◇강 지역이 화산 지형이라 주상절리를 실제로 볼 수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야옹: 개인 블로그에 올라온 방문 후기를 봤는데요, 일부 다리에만 지질학적 특성을 드러낸 이름을 붙였대네요. 방송에서 들을 땐 모든 다리 이름이 그런 줄 알았네요.

산토끼: 작년에 갔던 곳이 나오니 반갑네요. 여기 가시면 입장료의 50%를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주더라고요. 인근 식당에서 그 상품권 잘 사용했어요. △△도청 누리집에 가 보니, 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정보가 있네요. 참고하세요!

하회탈: 거기 갔을 때 화장실이 많지 않아 고생했어요. 화장실 위치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니 꼭 확인하세요!

- ① ‘굴향’은 정보 전달자가 소개한 내용의 출처를 확인하며 방송에서 다른 내용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② ‘몽계구름’은 자신의 배경지식을 토대로 방송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며 정보를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 ③ ‘야옹’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방송에서 전달한 정보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④ ‘산토끼’는 개인적인 경험과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 ⑤ ‘하회탈’은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것을 근거로 방송에서 전달한 정보 중 특정한 정보의 유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42. (가)를 바탕으로 (나)를 제작하기 위해 세운 계획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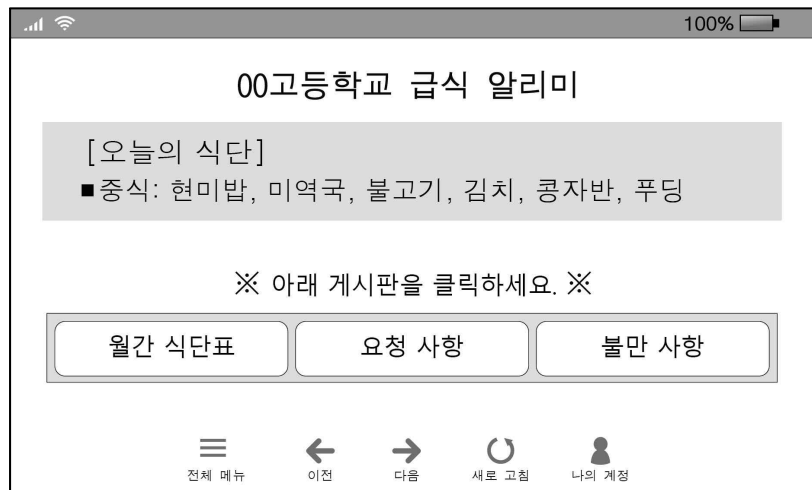
- ① 방송에서 언급한 구절을 활용하여 포스터 제목을 정해야지.
- ② 방송에서 소개한 내용 중 지질학적 특성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두 다리의 시각적 이미지를 나란히 제시해야지.
- ③ 방송에서 도전해 보기를 권장한 장소를 포함하여 행사 일정을 제시해야지.
- ④ 방송에서 소개하지 않았지만 행사 참가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야지.
- ⑤ 방송에서 안내한 행사에 참가하고 싶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QR 코드를 제시해야지.

43. ㉑ ~ 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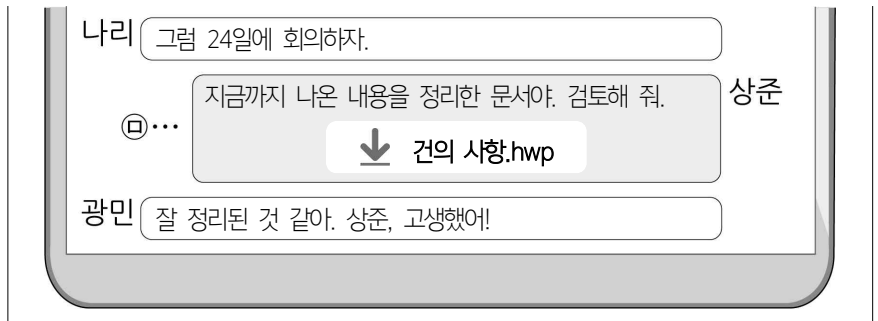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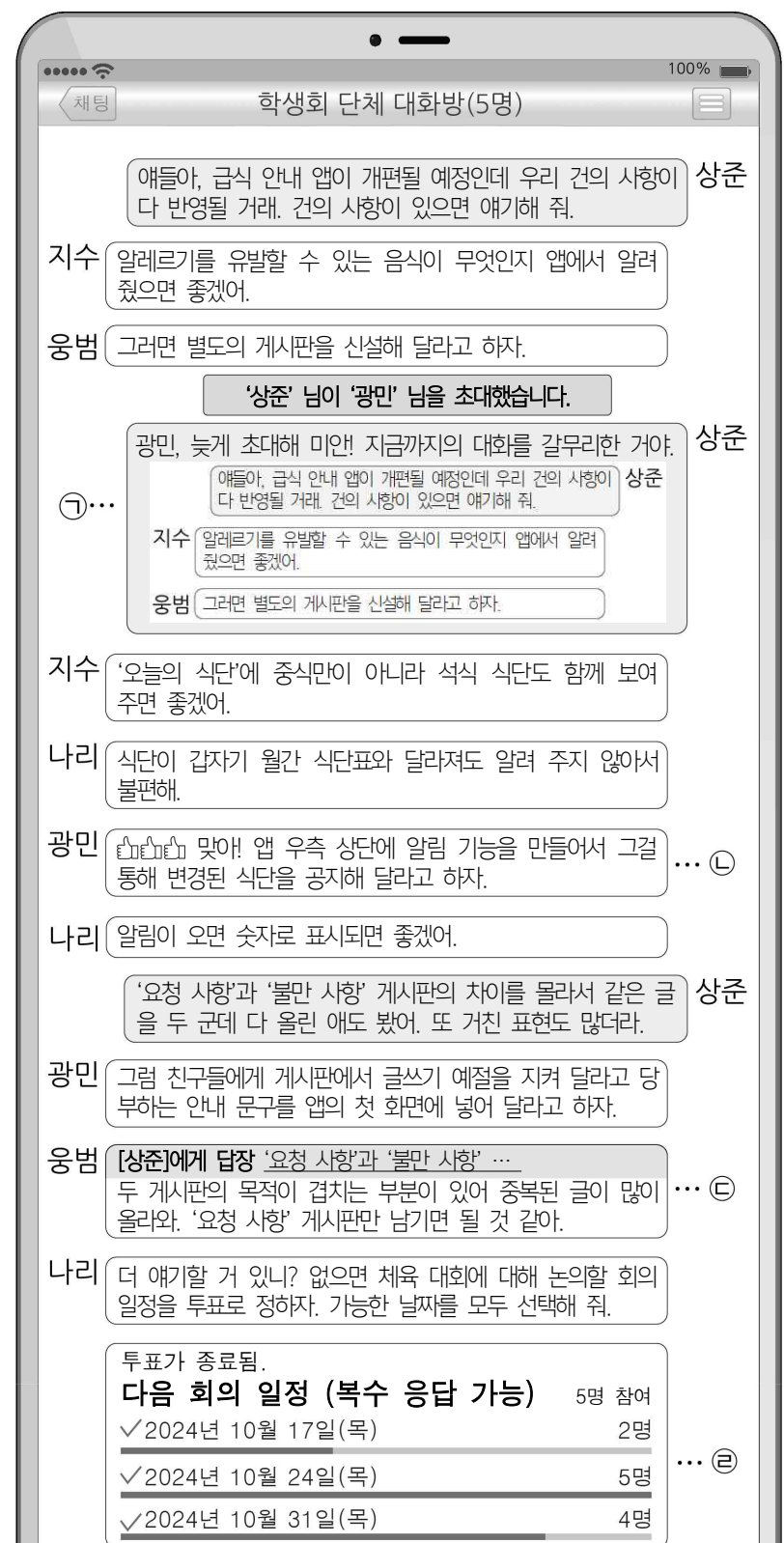
- ① ㉑: 조사 ‘의’를 사용해, 여행가를 섭외하도록 요청한 주체를 나타내고 있다.
- ② ㉒: 조사 ‘보다’를 사용해, 잔도가 다른 대상에 비해 가지는 장점을 부각하고 있다.
- ③ ㉓: 조사 ‘로’를 사용해, 강이 만들어 낸 지형이 변화한 결과를 드러내고 있다.
- ④ ㉔: 조사 ‘에서’를 사용해, 초보자가 도보 여행을 시작하기 적당한 장소를 소개하고 있다.
- ⑤ ㉕: 조사 ‘에’를 사용해, 걷기 행사가 진행되는 지역을 안내하고 있다.

[44~45] (가)는 ‘학교 급식 안내 앱’을 실행할 때의 첫 화면이고, (나)는 학생회 누리 소통망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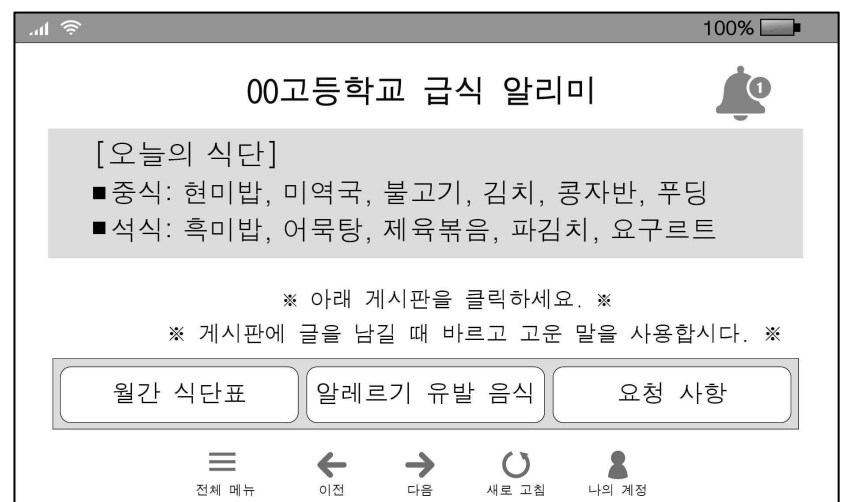


44. ㉠~㉤에 드러난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화면을 갈무리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대화에 새로 참여한 구성원에게 지금까지의 대화 내용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 시각적 이미지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 ③ ㉢: 답장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상대방과 자신의 의견을 절충하고 있다.
- ④ ㉣: 투표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단체 대화방에 속한 구성원들의 응답을 모아 보여 주고 있다.
- ⑤ ㉤: 문서를 전달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단체 대화방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있다.

45. (나)의 대화 내용을 반영하여 (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고 했을 때, 수정한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알레르기 유발 음식과 관련된 ‘지수’와 ‘웅범’의 대화를 반영하여 게시판을 신설하였다.
- ② ‘오늘의 식단’과 관련된 ‘지수’와 ‘나리’의 대화를 반영하여 석식 식단을 안내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 ③ 변경된 식단을 공지하는 것과 관련된 ‘나리’와 ‘광민’의 대화를 반영하여 알림 기능을 생성하였다.
- ④ 중복된 글이 올라오는 두 게시판에 대한 ‘상준’과 ‘웅범’의 대화를 반영하여 ‘불만 사항’ 게시판을 삭제하였다.
- ⑤ 게시판의 글쓰기 예절과 관련된 ‘상준’과 ‘광민’의 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안내 문구를 삽입하였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